

같이 보기

: KHA 미식회

겨울철 길거리를 걷다 보면 발길을 잡는 곳이 있다.
바로 겨울철 간식거리를 파는 노점상이다.
날이 추울수록 더욱 생각나게 하는 겨울철 길거리 간식.
그중에서도 언제나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간식은 바로 붕어빵이다.

글 조인숙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겨울철 길거리 간식

추위를 견디게 하는 든든함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몇 년 전(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인 2019년 전)까지만 해도 12월은 송년 모임으로 가득했다.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겨울 송년회를 하면 필수로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다. 바로 노점상에서 팔던 겨울철 간식거리 붕어빵과 어묵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근처에 노점상은 거기 하나뿐이었다. 독점판매 구조였달까. 결국 송년 모임을 하며 이동하는 인근 직장인들은 꼭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다른 노점상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지만, 그럴

이유도 없었다. 그 집 붕어빵이 정말 맛있었으니까. 우리도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2차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누군가 ‘어! 붕어빵!’이라 외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노점상 앞으로 모였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 했던가. 조금 전까지 배불러서 못 먹겠다던 사람들이 붕어빵과 어묵을 하나씩 주워 든다. 팀장이 “붕어빵과 어묵은 내가 산다! 근데, 하나씩만 먹어”라고 외친다. 팀장 찬스를 잡은 동료들은 ‘하나씩만’이란 말은 이미 들리지 않는다. 한국인에게는 밥배와 술배, 간식배가 따로 있다더니, 사실인 것 같았다. 물론 바삭하면서 달콤한 붕어빵과 짭조름한 어묵과 어묵국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따뜻한 음식을 먹으니 몸속의 찬 기운은 사라지고 없다. 대부분 노점의 겨울 간식거리 조합은 붕어빵과 어묵이거나 호떡과 어묵이다. 가끔 붕어빵과 호떡, 어묵까지 파는 호사스러운(?) 노점을 만나기도 하지만 많지 않다.





겨울 간식 지도 앱

가슴속3천원
전국 붕어빵 가게를 알려주는 지도다. 붕어빵 외에도 호떡, 타코야키 등을 파는 곳을 알려준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로, 이용자가 주변 붕어빵 가게를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겨울 간식, 어떤 취향인가요

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겨울철 간식거리는 붕어빵, 어묵 외에도 다양하다. 호빵과 군고구마, 군밤, 호떡, 달걀빵, 국화빵 등이다. 퇴근길에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고 만다. 행여 식어버릴까 외투 안에 넣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겨울철 국민 간식인 붕어빵의 원형은 일본의 '타이아키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되면서 한국형으로 변형된 것이 붕어빵이다. 크기가 큰 타이야키에 비해 붕어빵은 좀 더 작다. 사장님과 흥정에 성공하면 몇 마리는 덤으로 받을 수도 있다. 붕어빵과 함께 인기 있는 겨울 간식인 계란빵은 1984년 인하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처음 팔기 시작했다. 원래 풀빵을 팔았는데, 팔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란을 넣은 것이 시초라고 한다.

붕어빵의 절친인 어묵 역시 일본에서 유래한 음식이다.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으깨어 다양한 재료와 반죽해 가열해서 만든 '가마보코'가 원형이다. 일본의 어묵탕은 국물을 자작하게 졸여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면, 한국의 어묵탕은 어묵 자체를 우려내 국물과 함께 즐긴다.

쫄득쫄득한 식감과 달콤한 설탕 맛이 일품인 호떡은 사실 오랑개 떡이었다. 1882년 임오군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들이 조리법을 변형해 인천 제물포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코로나로 겨울 간식을 파는 노점이 줄어들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일까. 지나는 길에 우연히 만난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다. 틀에서 방금 꺼내 한 김 식힌 붕어빵의 바삭하고 달콤함 맛이 그리운 계절이다. 🍷

